

# 호남민심 흔들는 '이준석 돌풍'...민주당 위기감 고조

### 국민의힘 서진정책 지지율 상승 민주당 텃밭 대선·지선 격랑 예고 지방권력 세대교체 거센 요구

국민의힘 대표에 국내 정당 사상 최초로 30대 이준석 후보가 선출되면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재보선에서 '2030'의 이탈이 두드러졌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거센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풀고 올 '젊은 보수'의 바람이 내년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마음을 담은 젊은층이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따라 보수 지지층으로 옮겨 갈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대선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지역 정치권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으로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정당에게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광주 5·18민주묘역 무릎사과'를 시작으로 국민의힘의 '호남 구애'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호남 보수세력'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13일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새 대표에 36세의 이준석 후보가 선출된 것과 관련, 지난 4·7재보선에서 나타난 '2030 세대'의 표심이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광주지역 민주당 소속 한 국회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폭 젊어진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젊은 층은 진보, 노년 층은 보수"라는 전통적인 공식이 깨지면서 진보 진영에서도 뼈를 깎는 쇠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수를 향해 마음을 여는 젊은 층이 늘고 있는 것은 호남 정치권 곳곳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한창인 광주지역에서는 최근들어 "젊은 층 당원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불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한 출마예정자는 "과거 당원 모집 과정에서 '절차가 까다롭다'며 거절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최근 20~30대는 노골적으로 '민주당이 싫다'며 거절한다"고 하소연했다.

'젊은 피'로 새롭게 진용을 짠 국민의힘도 과거와는 다른 호남 전략을 펴고 있다. 과거 선거 때마다 후보자를 찾지 못하는 인물만이 극심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정치인들이 호남에서 보수의 깃발을 들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실제, 당원 비율이 0.8%에 불과한 호남에서 국민의힘 옷을 입고 대구 출신인 천하람(35)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호남 공략에 대한 간절함을 내비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호남 몫'을 약속했고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준석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지도부 구성 이후 첫 날 공식일정으로 14일 오전 광주 동구청 광장에 차려진 학동 건물봉과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은 "당에서 약속한 '호남 출신 비례대표'도 호남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당 안팎에서 쇠신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도 국민의힘 못지 않게 젊은 초선 의원들이 많은 만큼 초선을 중심으로, 당 쇄신과 '세대교체'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준석 돌풍'이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대선 이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기성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표심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표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회동해 인사 문제를 협의하고 언론인터뷰 등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

## TK 압도적 지지...호남 출신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선

### 10만253표 얻어 10명 중 1위 동서화합 메시지로 표심 공략 제1야당 호남 소통 교두보 기대

호남 출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제1야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그동안 불모지로 여겨졌던 호남 소통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남 주류의 보수정당에서 전당대회 기간동안 호남 출신을 앞세웠던 조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것도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총 10만253표(24.11%)를 얻어 최고위원 후보 10명 중 1위를 차지했다. 전당대회에서 '30대 돌풍'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준석 신임 당 대표(9만3392)보다 더 많은 득표수다.

조 의원의 당원 득표율은 21.5%(6만2497표)로, 영남 출신의 김재원 전 의원(16.4%, 5만571표)보다 1만 표 이상 앞섰다. 이는 전권교체에 대한 보수진영의 열망이 영남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서화합'을 이끌 조 의원에겐 향했다는 평가다. 또한, 30대 당 대표 선출에, 호남 출신의 조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힘 조수진 신임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당선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까지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면서 보수진영에서도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열망이 표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명의 최고위원 후보자 중 유일한 호남 출신이었던 조 의원은 경선을 치르며 "동서 화합과 국민 통합을 일궈내야 한다. 호남 출신 정치인이 최고위원이 된다면 국민이 국민의힘을 다시 볼 것이다"는 메시지로 표심을 자극했다. 결과적으로 이 메시지가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캠프를 운영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러낸 조 의원은 그동안 보수정당에서 보지 못했던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에서도 "호남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호남의 딸 조수진이 이 자리에 섰다"는 등의 호남 출신을 강조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조 의원은 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동아일보 기자와 논설위원을 지냈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진 정책에 맞춰 호남 동행의원 등 호남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달 10일엔 초선 의원 10여 명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는 일정을 직접 기획하기도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문 대통령, 이준석에 축하 전화...“큰 일 하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이준석 신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을 위한 출국에 앞서 이날 오후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큰 일을 하셨다. 훌륭하다"며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축하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선 국면이라 당 차원이 아닌 여의도 정치에서는 대립이 불가피하다라도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정부와는 협조해 나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3~4분간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문 대

통령의 축하 인사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협치의 모델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특히 "우리가 국정 여단에서, 특히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국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여야가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국정 난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조만간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대표가 대립과 갈등을 반복해왔던 간의 정치 문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를 반영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여야 5당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3개월 단위로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기준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